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국비 3억원 확보

남원시는 신규 광역 소각시설(100톤/일) 설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일부인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6년 내 조속한 소각시설 설치 완료에 위해 적국 국·도비 증액 확보 등 총력을 기울여 매주 전북특별자치도, 세종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꾸준한 사업설명과 추진상황 등 남원시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 그 결과 2024년 당초 3억에서 국·도비

총 16.9억원(국비 13억원, 도비 3.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

앞서 시에서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입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소각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신청 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어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홍보하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 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 지역에서 입지 유치 희망을 신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남원시 대신면 대곡리 일원에 2023년 9월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신속한 소각시설 설치 이후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농촌보급자리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조성 계획을 추진,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 소멸위기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군의원·직원 대상 문화 역량 강화 교육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 역사 문화적 가치 및 관광활성화 모색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0일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으로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이기길 명예교수와 임실군청 김철배 학예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임실군 관내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하가 유적의 정식 명칭은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으로, 지난 2000년 조선대학교 박물관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각추상석기, 나이프형 석기, 각종 찌르개류 등 27,000여점이 수습되었고, 지난 2023년 1월 20일 전라북도 기념물(제159호)로 지정되었으

며,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일대 61필지, 32,191㎡로 이루어져 있다.

이기길 명예교수는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지의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특히, "슴베찌르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석기 기술의 이동과 관련성이 매우 깊어, 한·중·일 석기문화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배 학예사로부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재 의장은 "이번 하가 구석기 유적 교육으로, 우리 고장 임실의 역사적 근원을 알고, 역사·문화자산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등손잡이칼(BACKED KNIFE)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립중앙박물관에 2010년부터 단독장에 전시되는 등, 임실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임실군의회는 지난 10일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으로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기업 유치 진행상황 점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소상공인들과 농가에 단비가 돼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업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농촌 중심지, 기초 생활거점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을 당부하고, 김한수 부위원장은 허브밸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관 조성에 힘써

달라고 지적했다.

소태수 위원은드론 방제로 인해 발생하는 양봉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윤지홍 위원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봉섭 위원은 산에 있는 불상 등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과 등산로 정비

를, 이기열 위원은 유·무기질 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대폭 축소된 비료 지원금의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명숙 위원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숙자 위원은 1X 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비 증액 사유와 드론제전 국도비 지원 협의 상황 질의와 도시재생사업은 보존 위주로 추진하고 용역 시 가로수 수중 선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임실군, 군민 누구나 무료로 '우리집 수돗물' 수질검사

임실군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질이 궁금한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채수와 검사를 실시하여 15일 이내에 알려준다.

검사 항목은 1차 검사 시 7개 항목(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망간, 아연, 구리)에 대해 진행한다.

1차 검사 불합격 시 2차 검사 6개 항목(경도, 색도, 일산화탄소,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물사랑 홈페이지(<https://ilovewater.or.kr>) 또는 임실군 상하수도과 정수장팀(063-640-2991)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외에도 정수, 노후 지역 등의 수도꼭지와 상수원수 등의 수질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순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더위로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강천산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이간에도 공원을 운영한다.

순창군, 강천산 야간개장 운영

기압절벽과 계곡, 울창한 숲 등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순창 강천산군립공원이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매주 토요일 밤과 휴가철에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순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더위로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강천산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야간에도 공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강천산 인근 상가들도 야간개장에 따른 관광객 확대를 기대하며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강천산 관람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휴무일 없이 매일 야간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을 마쳐야 하며,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 청소년 4,000원이며 입장료 중

2,000원을 지역상품권인 순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간개장 구간은 매표소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이며, 반딧불 조명과 함께 다양한 빛과 스토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 '단월야행'을 감상할 수 있다.

'단월야행'은 조선 중기 고전 소설인 '설공찬전'을 모티브 한 것으로 구름계곡, 신비의 강, 빛의 정원, 달의 궁궐 등의 다양한 컨셉을 미디어쇼와 화려한 조명으로 연출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다.

야간의 강천산군립공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전달하고 은은한 경관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과 물소리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발효관광재단, 광주 관광 일자리 페스타 참여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운숙)이 지난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 관광 일자리 페스타'에 참여해 재단의 채용 상담부스 및 순창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광발전 및 지역 관광일자리 활성을 위해 광주관광공사와 진행했으며, △관광사업체, 대학 관계자, 관련기관 등 단체별 비즈니스 및 협업 도모를 위한 관·산·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채용설명회 및 채용 상담부스 운영 등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재단은 관광 페스타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5일에 진행되는 '강천산 산돌바람 매표 트래킹' 홍보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1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군민들의 구강 관리를 위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순창을 재래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중보건과의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구강검진 및 치주병 상담, 올바른 칫솔질 방법 안내와 구강용품, 홍보물, 리플렛을 제공하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첫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의 '치'를 숫자화해 평생 사용해야 할 치아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아 6월 9일로 지정됐다.

조석범 순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우리 몸의 전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1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군민들의 구강 관리를 위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순창을 재래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중보건과의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구강검진 및 치주병 상담, 올바른 칫솔질 방법 안내와 구강용품, 홍보물, 리플렛을 제공하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첫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의 '치'를 숫자화해 평생 사용해야 할 치아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아 6월 9일로 지정됐다.

조석범 순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우리 몸의 전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